

## 신년단상



공 선 옥

< 소설가 >

나 어려서 명절이나 새해가 되기전 선날 그믐에 어머니는 우리를 대대적으로 목욕을 시켰다. 먼저 부엌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길어다 붓고 장작불을 지폈다. 장작불 앞에는 또 큰 함지박을 가져다 놓고 차례로 우리 아이들을 담갔다. 큰 수건으로 온몸이 발갱게 되도록 밀어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그때는 왜 그리 아프기만 했는지, 나는 목욕 안하겠다고 징징 울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인정사정없이 때를 밀어주시고는 목욕이 다 끝나고 나면 궁둥이 한번 철썩 후려쳐 주시고는 했다. 목욕할 때는 아프기만 하더니 목욕 끝나고 따뜻한 아랫목에 궁둥이 붙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노라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져 기분좋은 졸음이 밀려왔다. 그래도 선달 그믐밤이라 잠을 잘 수는 없었다. 잠을 자버리면 다음날 머리와 눈썹이 하얗게 새버린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은 그때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 이제 좀 있어 정월 보름이 되면 내더위 니 더위 맞더위를 해야 여름에 더위 안먹는다는 말을 믿었고 눈병이 났을때 병난 눈의 눈썹 떼어내 돌 위에다 놓고 누가 그 돌 걸어차게 되면 내 눈병이 낫는다는 말을 믿었듯이.

온 집안식구가 목욕을 하고 나서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없이 내려 쌓이고 있던것도 모르고 있다가 새해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설이 내렸다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때 눈이 와야 특별한 눈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새해 아침에 눈이 내리면 웬지 모르게 새해에는 좋은 일이 생길것 같은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새해 맞이 행사 중에 목욕하기만 있는것이 아니다. 여유가 좀 있는 집에서는 사진사를 불러다가 가족사진을 찍는 집도 있었다. 요즘이야 집집마다 사진기가 있어 사진 귀한 줄 모르는 시대가 됐지만 나 어려서는 워낙에 시골인데다 사진기조차도 없어 사진 한방 찍는게 집안의 행사가 되었다. 사진사 부르기가 뭇하면 이웃의 대사 치르는 날을 기다렸다. 요즘은 화창한 봄날에 결혼들을 많이 하지만 그때 우리 고향에서는 이상하게 정월에 대사를 많이 치뤘다. 흰눈이 난분분 내리는 초례청에 신랑각시가 오색테이프를 뒤집어쓰고 장정 두사람이 양쪽에서 받쳐든 병풍을 배경 삼아 출장 온 사진사한테 사진을 찍었다. 그

출장 사진사 데려다가 보리쌀 몇되 퍼주고 새해맞이 사진들을 찍고는 했던 것이다

해가 갈리는 이맘때 즈음, 나는 또 어김없이 사진첩을 꺼냈다. 지난해에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습관처럼 아주 오래된 흑백사진을 들여다 보게 된다.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않고 쌓아두기만 했던 사진을 해가 갈리면서 한번씩 보게 되는 것이다. 묵은 사진들을 꺼내 보고 있노라면 한해 한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해갔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다. 키는 조금 컸지만 웬지모르게 수척해 보이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그해는 내가 좀 아팠었구나, 싶다. 지금은 무엇 때문에 그리도 마음앓이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그 순간에는 상당한 마음고생을 했었다는 아련한 기억으로 새삼스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내 부모님의 살아생전 모습을 바로 어제인 듯 생생히 되살려 주는 사진들.

내가 사진정리 한단 핑계로 사진들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우리집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 또 새해맞이 하는구나, 하는 인사말을 건네곤 한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새해가 됐으니 뭔가를 해야 한다는 시늉들로 분주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세 아이들을 문지방에 일렬로 나란히 세워놓고 키를 재기 시작한다. 내 부모님의 새해맞이 행사가 목욕하기와 사진찍기였다면 내 새해맞이 방식은 아이들 키재기로부터 시작된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매직펜으로 우선 막내부터 재나가기 시작한다. 올 한해도 열심히 자라주길 기원하면서, 키만 크지 말고 마음도 키 큰만큼 자라주길 기원하면서 그런 다음에는 한아이 앞에 한권씩 새 일기장을 건네준다. 일부터 딱 일년 쓸만큼의 면수를 지닌 일기장을 지난해 구입해 줬으므로 아이들도 새 일기장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사춘기가 한창인 큰아이한테는 열쇠가 달린 일기장을 사주었다. 일기장을 주면서 작년에 물었던 물음을 똑같이 묻는다. 비상시에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 두가지가 무엇? 하면 세아이가 사진하고 일기장이라고 복창을 한다. 재작년에 처음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는 큰아이는 돈이라고 했고 둘째는 옷이라 했고 셋째는 로봇장난감이라고 했었다. 일기장 분배가 끝나고 나서는 새해맞이 등산을 한다. 산에 올라 묵은 기운 뱉어내고 새로운 정기를 흠뻑 들이키는 것이 끝나면 우리집 새해맞이 행사는 대충 끝을 맺는 것이다.

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목욕을 시키고 사진을 찍고 하는 식으로 새해맞이 행사를 했던 것을 추억하는 것처럼 내 아이들도 이답에 커서 내가 저희들한테 새해맞이 행사하던 것들을 떠올려 주길 바란다. 그것을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한해를 보내고 한해를 맞는 마음이 보다 경건해지고 보다 살가워지고 보다 충만한것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런 마음으로 한해 한해를 살아갈수 있기를.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지금, 나는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부모의 사랑을 되새기고 그리하여 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들을 챙긴다. 내 부모의 사랑은 대를 이어, 해를 이어 내 아이들에게로, 내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질것이다. ☺